

# Macro Comment



## 전방위 고른 회복과 낙관적 기대

흥국거시경제 김진성 / (02)6742-3533 / jskim@heungkuksec.co.kr

- 6월 산업활동동향, 생산과 소비 및 투자 전 부문이 경기개선에 기여
- 생산 증가세의 업종간 확산, 수출 증가세의 품목별, 지역간 확산 등 낙관적 동향
-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도전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경기회복 흐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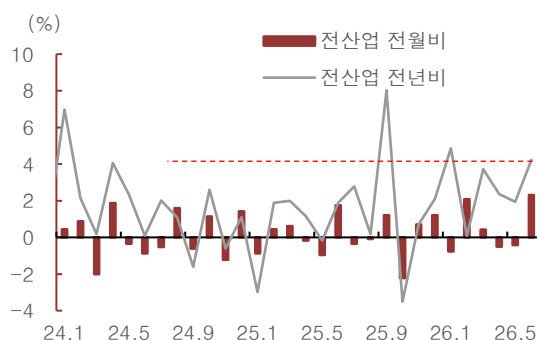
### 경기흐름은 내수, 성장의 폭은 수출사이클이 관건

4~5월 부진했던 광공업 생산이 반등하면서 6월중에는 전산업이 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6월중 전산업 생산이 전월비 2.3%, 전년대비 4.2% 증가했는데 광공업 생산은 전월비 6.4%, 전년대비 5.8% 큰 폭으로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꾸준히 늘어났고, 건설업 생산(불변가격 건설기성)은 전년대비 -4.0%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전월비로 4.0%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 회복에는 반도체 위주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물량 기준 생산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이외 산업의 기여가 컸다. 전년대비 5.8% 증가에 대해 반도체(2.2%yoy) 기여율은 12.5%에 그쳤다. 생산증가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광공업 생산확산지수가 66.7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생산확산지수 = [전월비 증가 업종수 + 보합 업종수\*0.5] / 전체업종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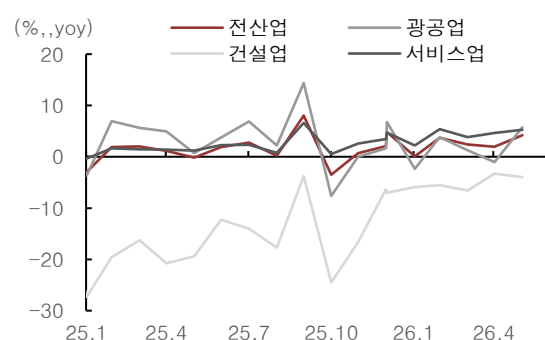
생산뿐 아니라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전 분야에서 회복세가 확대되었다. 소매판매는 전월비 2.7%,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전년대비 10.9% 증가하여 소비 확대에 기여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비 0.7%, 전년대비 5.3% 증가하여 서비스소비도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에 서 모두 늘어 전월비 5.8%, 전년대비 21.7% 대폭 확대되었다. 국내기계수주도 전년대비 52.1% 늘어 선행지표도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

그림 1 전산업 생산증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부문별 생산 증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건설투자도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전체 경기회복세에 기여하고 있다. 토목공사보다 건축공사 위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6월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28.1% 감소했으나 2분기 전체로는 22.3%의 증가세를 보여 향후 꾸준한 회복 기대를 유지했다.

글로벌 수요 증가와 가격상승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비해 공급(생산)은 제한적인 양상이어서 물량기준 성장지표에 대한 기여가 높지 않은 상황이나 유관 기업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 투자, 소비 등 내수회복에 대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이는 상반기에 이어 양호한 경기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성장의 폭은 확장적인 수출 사이클의 지속성과 크기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동향과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7월중 수출(잠정)은 전년대비 62.8% 증가한 988.9억 달러(무역수지 +303.2억 달러)를 기록했다. 분기말/반기말이었던 6월 대비 소폭 줄었으나 7월 수출로는 역대 최대이다. 조업일수 차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전년대비 69.6% 증가하였다. 전체 수출의 40%에 달하는 반도체가 전년대비 179%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도체 이외 수출도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20대 주력 수출품목 중 가전을 제외한 19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9대 수출지역 중 CIS를 제외한 8개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다.

7월까지의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세와 물량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가격과 수요 등 반도체 사이클의 확장적 지속 여부에 대한 도전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조치와 주요국의 비관세 보호무역조치 강화 등 제약요인도 예상된다. 기저효과와 부정적 제약을 반영하면 하반기 순수출의 성장기여가 일정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나 6월 생산과 7월 수출 증가세의 확산추세를 감안하면 여전히 견조한 경기회복흐름이 확장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3 반도체 수출출하와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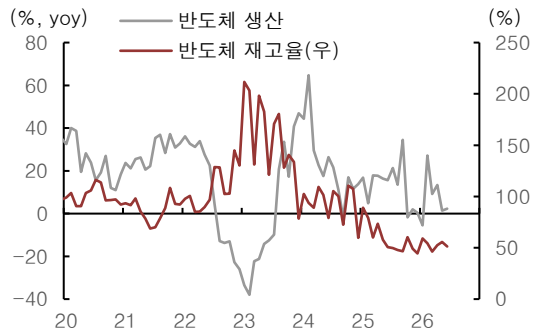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반도체 및 반도체 제외 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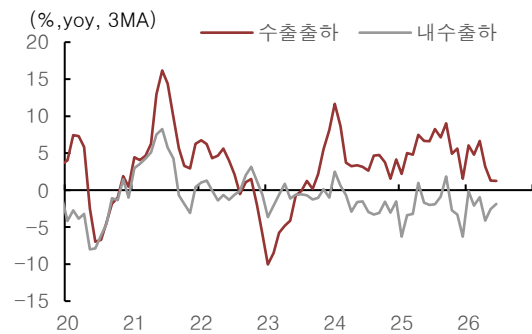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주: 26.2분기는 4~5월 평균

그림 5 반도체 생산과 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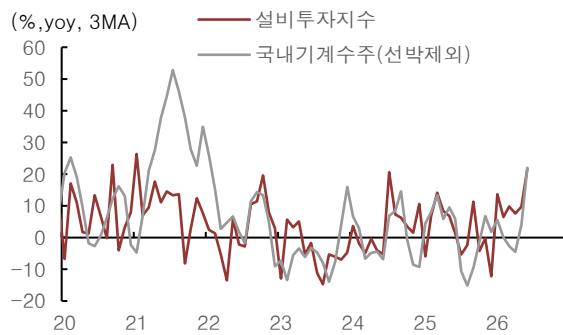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수출출하와 내수출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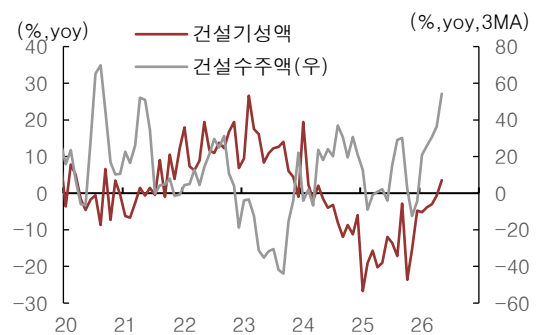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설비투자자과 국내기계수주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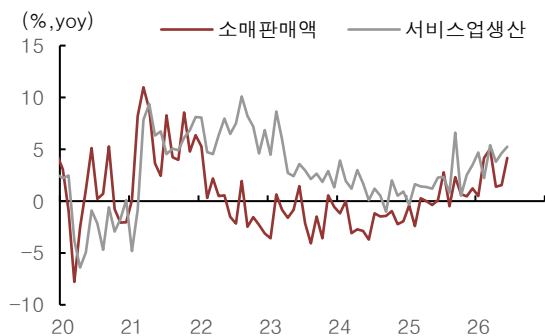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건설기성액과 건설수주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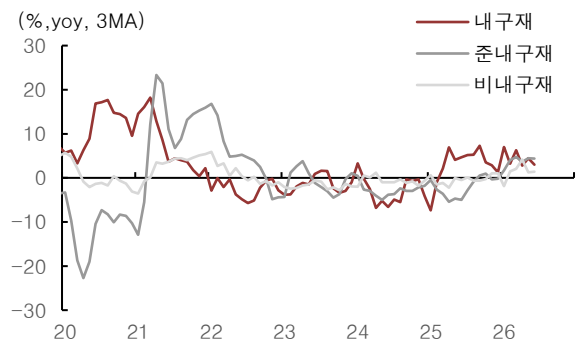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생산 증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재별 소매판매 증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홍콩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 홍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홍국씨앗체는 홍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홍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홍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



- 주소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14층)  
(리서치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6층)
- 전화번호 영업부 대표 02)6742-3635
- 팩스 영업부 대표 02)739-6286